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모든 사람이 죄인임

[롬 3:1-2]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법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들 중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해 온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성경 저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들을 계시하셨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전달하게 하셨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이였다. 시편 147:19-20,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3-4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관의 특권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폐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거짓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들과 심판에서 의로우시다.

[5-6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여서 그 불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실 수 없다. 세상을 심

판하시는 그가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심판자가 되실 수 있겠는가? 의롭지 못한 심판자는 참된 심판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일지라도, 또 그들의 죄와 부도덕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는 한 그들은 마땅히 정죄(定罪)받아야 한다.

[7-8절] 그러나 왜냐하면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않겠느냐 함이라.]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定罪)받는 것이 옳으니라.

본문은 5, 6절을 보충 설명한다. 사람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을지라도 그의 거짓말이 어떤 선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선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이든지 목표가 선하고 옳아야 할 뿐 아니라, 방법도 선하고 옳아야 한다.

이 말씀은 진도를 위해 자유주의 교회들과 천주교 회들과 협력하는 어떤 복음주의 진도자들의 오류를 잘 증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른 목표를 가져야 하고 바른 방법도 사용해야 한다. 바른 목표를 위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임을 증거하였다. 그는 1장에서는 주로 이방인의 죄를, 2장에서는 주로 유대인의 죄를 증거했다고 보인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10-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과 사람’(神

人)이신 예수님만 예외이실 뿐이다. 사람들 중에서 그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다(히 4:15; 뱀전 2:22; 요일 3:5). 그 외에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일치하게 산 자, 참으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의인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도(창 6:9; 욥 1:1; 겔 14:14)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다. 또 깨닫는 자도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 이시며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정로(正路)를 알지 못함으로 이리저리 치우쳤고 헛되고 무가치하게 살고 있다. 사람들이 쌓은 선한 업적이라는 것도 실상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영원히 가치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13-15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구역질나는 나쁜 냄새를 낸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뿐이다. 또 사람들의 혀는 속이는 혀이다. 사람들은 거짓말에 숙련되어 있다. 또 그 입술에는 남을 죽이는 독이 있고 그들의 말들은 남을 저주하는 악독으로 가득하다. 또 그들의 발들은 남을 죽이기에 빠르다. 참으로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무능력해졌다.

[16-18절] 파멸과 고생 불행이 그 길에 있어 평강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인 사람들의 길에는 파멸과 불행이 있고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죄인들의 죄악된 삶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잠 16:6).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악을 버리고 떠남도 없고 참된 의(義)와 선(善)도 없다. 그런 자들에게 파멸과 불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이며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였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경을 주셨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 주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감사히 받고 읽고 다 믿고 다 실천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디모데후서 2:13, “우리는 미쁘신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

으시리라.”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 방법도 바르고 참되게 가져야 한다.

셋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심령이 심히 부패되어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하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고(렘 17:9) 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빈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다(렘 13:23).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넷째로, 죄인들의 길에는 파멸과 불행이 있고 그들의 심령에는 평안이 없다. “파멸과 불행이 그 길에 있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 48: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는 죽음과 불행과 지옥 형벌을 가져왔다.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죄사함과 의(義)의 구원이 필요하다.

주일오후설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감

[창 46:1-2]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야 야곱야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브엘세바는 유다 땅의 가장 남단의 성읍이다. 희생을 드렸다는 말은 짐승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다. 짐승 제사 중 대표적인 것은 번제이며 그것은 속죄와 헌신을 나타낸다.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라는 말은 야곱의 가정에 경건이 계대(繼代)되고 있음을 보인다. 신앙의 유산은 재물의 유산보다 훨씬 더 귀하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행복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공적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가능하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참 지식의 시작이요 핵심이다(잠 1:7; 9:10).

하나님께서서는 ‘밤의 이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상(異象)은 옛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게시의 한 방법이었다. 후에 사무엘을 부르셨듯이(삼상 3:3-9),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타나 “야곱야, 야곱야”라고 그를 부르셨고 야곱은 대답했다.

[3-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나는 하나님,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라는 원어(하엘)[그 하나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낸다. 세상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며(창 12:7) 전에 조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일도 있었고(창 12:10-20),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다(창 26:2). 야곱은 그 일들을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야곱에게는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라고 지시하시는 것이다. 또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나하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로 내려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원문에는 ‘내가라는 말(아노키)이 두 번 나온다. 인칭대명사는 히브리어에서 강조할 때만 쓰이지만, 본문에서는 그것이 두 번이나 쓰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고 강조해 말씀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기리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은 애굽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보는 데서 임종을 맞을 것이다. 그것은 많은 고난을 당했던 야곱에게 큰 위로와 보상이 될 것이다.

[5-7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레[수레들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은 그 가족들과 기축들을 거느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의 거주는 야곱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훈련기간이 될 것이다. 애굽은 이 세상과 같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이다.

[8-15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들 곧 여무엘과 아민과 오히와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

요, 유다의 아들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잇사갈의 아들들 곧 돌라와 부와와 옘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들 곧 세렛과 엘론과 알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레아가 낳은 32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온다. 우리말 성경의 15절은 레아가 33명을 낳은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며 또 그의[야곱의] 딸 디나라. 그의[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모두 33명이라”고 되어 있다. ‘그의’(남성인칭어미)라는 말은 레아를 가리키지 않고 야곱을 가리킨다. 야곱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33명이라고 한 것은 야곱 자신을 포함한 숫자인 것 같다. 즉 야곱 자신과, 아들들 6명, 딸 1명, 손자 23명, 증손자 2명, 도합 33명인 것이다.

[16-18절] 갓의 아들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레아의 여중 실바가 낳은 자녀들은 갓과 그의 일곱 아들들, 아셀과 그의 네 아들들과 한 명의 딸, 그리고 두 명의 손자들, 도합 16명이다.

[19-22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야만과 에히와 로스와 뭍뵘과 흠뵘과 아룻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자녀들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 베냐민과 그의 열 아들들, 도합 14명이다. 본문은 특히 라헬을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고 표현한다. 라헬은 야곱이 특히 사랑했던 아내이었다.

[23-25절]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렐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마지막으로, 라헬의 여중 빌하가 낳은 자녀들은 단과 그의 한 명의 아들, 납달리와 그의 네 아들들, 도합 7명이다.

[26-27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애굽에 이른 야곱 집의 사람들의 도합 70명에는, 야곱 자신과 레아의 지손 32명, 실바의 지손 16명, 라헬의 지손 14명, 빌하의 지손 7명이 포함되며, 야곱과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빼면 66명이다. 70명 속에는 야곱의 아내들과 자부들과 종들은 빠져 있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이라는 표현의 ‘몸’이라는 원어(아레크)는 ‘허벅지, 허리’라는 말로서 ‘생식기관’을 가리킨다.

70명의 적은 무리가 애굽에 내려갔으나, 430년 후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성인 남자들만 60만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아마 200만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무리가 될 것이다(출 12:37, 40).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3절), 그들은 거기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70명의 명단에는 딸들이 두 명 들어 있을 뿐 대부분이 아들들이다. 물론, 세상에서 여성의 역할도 중요하다. 여성의 가장 큰 일은 출산이고 또 집안일을 하는 것도 큰 역할이다(잠 31:27; 딤후 25). 또 여성들은 복음 사역자들도 도왔다(눅 8:1-3; 롬 16:1, 3, 6, 12, 13). 그러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남성의 역할을 중요시하셨다. 그는 구약시대에 남자들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되게 하였고 신약시대에는 사도와 목사와 장로가 되게 하셨다. 간혹 예외가 있었지만 예외는 예외일 뿐이다. 오늘날도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남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8-30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다.

야곱과 요셉이 서로 얼굴을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그것은 야곱이 받은 오랫동안의 고난의 보상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31-34절]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나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고센 땅은 애굽의 나일강 하구 동쪽의 비옥한 땅으로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깝다. 창세기 47장은 그곳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라암세스라고 말했다(6, 11절). 본장과 앞뒷장은 고센 땅을 강조한다(45:10; 46:28, 29, 34; 47:1, 4, 6, 27; 50:8).

요셉이 그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려 한 것과 야곱도 고센 땅에 거하려 한 것은 나중에 떠날 것을 예상하여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후에 애굽에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창 46:4) 야곱과 요셉의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의 삶의 길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불가피한 이사가 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그것은 불가피하였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셨고 허락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시 37:5; 잠 16:3).

둘째로, 성도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위로와 기쁨도 있다. 야곱의 생애가 그러했다. 오랜 고난 후에, 그는 비록 가나안에서가 아니고 애굽에서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고 그의 섬김을 받음으로 큰 위로를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3-4,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치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그의 위로를 체험해야 한다.

셋째로, 애굽과 고센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의 영주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장차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야 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길이다(대상 29:15; 히 11:13; 벰전 2:11).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인격의 훈련장일 뿐이며,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믿음의 족장들은 이 세상의 본향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히 11:13-16).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주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벰후 3:11-13). 우리는 그 복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사모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 또한 이념적 안정을 위해,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 기도합니다.